# 전국 학교 '5·18 정신' 공유한다

## 광주시 교육청, 16~27일 5·18민주화운동 기념 교육 주간 설정
## 스웨덴 등 교육자들과 행사…교육꾸러미·도서 전국 학교에 배포

광주시교육청이 5·18 42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오월 체험행사와 대면 교육활동에 나선다.

정부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와 거리두기 해제 등 코로나19 대응조치 완화에 따라 5·18 관련 교육도 정상화 된다.

광주시교육청은 "5·18민주화운동 기념 교육 주간(16~27일)을 설정하고 전국 학교와 함께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 기간 교육 기관 및 학교에서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5·18을 계기로 진행하는 교육, 주먹밥 체험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진행한다.

국립 5·18민주묘지나 옛 전남도청 등 5·18 사적지에서 진행되는 현장 체험, 학교로 찾아가는 5·18 공연과 다양한 전시 등 대면 5·18 교육활동도 확대 운영한다. 사이버 5·18 기념관, 랜선 캠프 '오월아 놀자' 등 온라인 교육활동도 병행한다.

특히 올해는 제주·대구·경북·스웨덴 등 국내 외 교육자들과 함께 5·18의 정신과 가치를 공유하고 계승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활발히 추진할 예정이다.

오는 16일에는 제주 학생과 교원을 초청해 제주 4·3과 5·18의 아픈 역사를 이해하고 교류하기 위한 행사를 진행한다. 이어 대구·경북 지역 교원들이 5·18 사적지를 방문, 오월극을 관람하고 대구 2·28민주운동과 5·18민주화운동 교육의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광주창의융합교육원에서는 오는 27일 교원, 시민을 대상으로 스웨덴 교육자와 함께하는 2022년 5·18교육포럼 '5·18, 스웨덴 시민교육을 만나다: 더 나은 민주주의, 더 좋은 시민교육을 위하여'를 개최한다. 스웨덴 시민 교육 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민주시민교육의 방향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는 5·18민주화운동 교육의 전국화를 넘어 세계화를 지향하기 위한 행사다.

이미 시교육청은 전국에서 500명의 교원들을 초청, 5·18 교육 학습동아리를 구성하고 광주를 직접 방문해 5·18 정신과 가치를 알고 배우는 5·18민주화운동 교육 전국교원 직무연수를 비롯한 5·18 교육 전국화 프로젝트를 추진, 호응을 얻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국 학생들에게 5·18민주화운동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5·18 청소년 현장 체험 캠프와 오월강사단 파견 등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전국 도서관을 대상으로 5·18민주화운동 교육자료를 전시하는 '오월 책방' 프로그램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5·18기념재단과 함께 5·18 교육자료 꾸러미 800상자와 5·18 인정도서 5000권을 전국 학교에 배포, 전국의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쉽게 가르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장휘국 교육감은 "5·18민주화운동은 세계인이 함께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라며 "광주를 넘어 전국, 더 나아가 전 세계에서 더 좋은 민주주의를 고민하는 분들과 함께 그 의미를 되새기며 더욱 뜻깊은 42주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교육연수원이 최근 진행한 '2022 선생님과 함께하는 오월 수업 이야기 직무연수 과정' 참가자들이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있다. 〈광주교육연수원 제공〉

광주대가 최근 호심관 스마트강의실에서 2022년부터 2024년에 시행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계획수립을 위해 학생대표단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최동호 대학혁신지원사업단 부단장이 사업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광주대 제공〉

# 광주대, 학생 중심 대학혁신지원사업 속도

## 재학생 의견 수렴…미래형 창의 인재양성체제 구축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종)가 학생 중심교육 가치 실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교육부의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결과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광주대는 교육·연구혁신을 통해 미래 인재 양성에 총력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9일 광주대에 따르면 향후 추진될 2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 계획수립을 위해 학교 호심관 스마트강의실에서 재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각 단과대와 학부(과) 회장단 등이 참여한 이번 회의, 지난 2019년부터 2021년에 펼쳐진 대학혁신지원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장단점을 파악하고, 필요 사항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대는 의견수렴을 거쳐 2022년부터 2024년에 시행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해나갈 계획이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교육부가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각 대학에 기본역량 강화 및 전략적 특성화를 지원하고, 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해 국가 혁신 성장의 토대가 되는 미래형 창의 인재 양성 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광주대는 최고의 교육환경 개선과 글로벌 교육과정 개발을 목표로 창의 융합 핵심역량 지원 교양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효율적 연구 지원체계 개편,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체계 강화 등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설 환경개선과 창의문화공간 설치, 실습실 기자재 구매 등을 통해 현장실무 중심의 혁신적인 교육체계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최동희 광주대 대학혁신지원사업단 부단장은 "학생들이 제시하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사업계획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다양한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조선대, 임상실증연계 치과의료소재 고도화사업 선정

## 3년간 총 사업비 93.65억 투입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최한철)이 '임상실증연계 치과의료소재 부품산업 고도화사업'(책임교수 손미경)에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오는 2023년부터 3년 간 국비 50억원을 포함해 모두 93억6500만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조선대 산학협력단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2023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에서 광주시 적합사업으로 이 프로젝트를 제시, 최종 선정됐다.

조선대 산학협력단과 조선대치과병원(손미경 병원장), 광주테크노파크 의료산업지원센터(박우진 센터장), 광주보건대(이정환 교수)가 참여해 추진한다.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사업'은 산업부의 지역산업 거점기관 지원사업으로, 지역에 구축된 혁신자원과 역량을 활용해 기존 산업을 고도화하고 다각화한다. 지역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지역성장 촉진 정책 중 하나다.

조선대 산학협력단과 조선대학교치과병원이 주관으로 참여한 '임상실증연계 치과의료소재부품산업 고도화사업'은 치과 의료 소재 제품 고도화 및 글로벌 산업 네트워크 연계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기업의 제품 인허가 후 시장진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임상의 연계 사용성 평가 지원 등을 통해 제품의 신뢰성과 유효성을 획득하고, 제품 고도화 및 글로벌 산업 네트워크를 연계해 지원한다.

참여 기관은 이를 위해 기업지원부터 치과산업 융합형 인력양성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 및 대응에 나선다.

특히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기술지원 등 전주기적 지원시스템을 통해 지역 치과소재 기업의 고도화, 다각화, 전환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손미경 조선대 치과병원장은 "이번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 선정 사업은 제품의 실수요자인 임상의 연계를 통해, 병원 중심의 의료서비스 산업이 치과의료소재부품 제조 산업의 성장을 주도하는 새로운 산·학·병·연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사업은 광주시의 치과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강한 의지가 반영된 만큼, 본 사업을 통해 지역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치과 의료산업이 혁신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대학생들의 꿈을 향한 도전 응원합니다

## 전남도 '무한도전 프로젝트' 30개 팀 선발 최대 1천만원 지원

전남도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대학생 무한도전 프로젝트'를 수행할 도내 10개 대학교 30팀을 선발했다.

'대학생 무한도전 프로젝트'는 대학생들의 열정과 꿈에 대한 도전을 전남도에서 응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작했다. 대학생이 스스로 도전과제를 발굴·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할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사업이다. 팀별로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전남인평원은 지역 대학생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여 12개 대학교 50개 팀이 신청함에 따라 당초 선발 예정보다 10팀을 늘려 총 30팀을 선발했다. 전라도 관련 곡 제작 및 공연, 청소년 대상 환경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진행, 도민과 함께하는 클래식 음악회 개최, 배달료를 절약하는 애플리케이션 제작, 낙후한 도심디자인 개선연구 등 다양한 과제가 선정됐다.

전남인평원은 오는 11월까지 7개월간 팀별 프로젝트를 수행토록 하고 연말 성과공유회를 통해 우수한 성과를 보여준 5팀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고석규 전남인평원장은 "올해 처음 시작한 대학생 무한도전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며 "지역 대학생의 꿈을 향한 도전이 지속되도록 다양한 지원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